
석사학위 청구논문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건 복

1998년 8월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이 건 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건복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8년 8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이 건 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 신장과 공격성 감소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비행청소년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검사특점은 높아질 것이다.

1-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특점은 사전검사특점보다 높을 것이다.

1-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 특점은 비교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검사 특점은 낮아질 것이다.

2-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특점은 사전검사 특점보다 낮을 것이다.

2-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 사후검사특점은 사전검사특점보다 낮을것이다.

2-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특점은 비교집단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소년원 남자원생 20명을 선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각 10명씩 배치하여 상담집단은 변창진, 김성희(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중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 보완하여 90분씩 8회 4주동안 지도하였고, 비교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만 참여토록 하였다.

측정도구는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수정, 재구성한 공격성척도 그리고 김성희(1980)가 개발한 주장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두집단간 사전-사후검사 점수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설1-1>과 <가설1-2><가설2-2>는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설2-1>과 <가설2-3> 그리고 <가설3>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실시후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이 향상되었다.

둘째, 훈련실시후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성향상과 공격성감소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음을 알수 있고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약간 감소시켰으나 유의있는 감소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추후 연구해 볼 과제이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연구의 제한점	6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비행과 행동치료	9
2. 주장행동의 의미와 요소	14
3. 공격성의 의미와 원인	18
4. 행동적 주장훈련 방법 및 효과	1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대 상	23
2. 설계와 절차	24
3. 도 구	27
4. 자료 처리	28
IV. 결과 및 해석	30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37
2. 결론	39
3. 제 언	40
참고문헌	41
영문초록	45
부 록	49

표 및 부록 목차

〈표Ⅱ-1〉 소극성, 주장성, 공격성의 행동특징, 감정, 결과에서 의 비교-----	16
〈표Ⅱ-2〉 영역별 주장행동 요소 -----	17
〈표Ⅱ-3〉 비주장행동원인에 따른 주장훈련 방법 및 대상 ----	20
〈표Ⅲ-1〉 연구대상자의 특성 분류 -----	23
〈표Ⅲ-2〉 상담·비교집단의 주장성, 공격성 척도 사전검사 결과 -	24
〈표Ⅲ-3〉 실험설계 -----	24
〈표Ⅲ-4〉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내용 -----	26
〈표Ⅲ-5〉 주장척도 문항구분 -----	27
〈표Ⅳ-1〉 상담집단의 주장성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 -----	30
〈표Ⅳ-2〉 상담집단과 주장성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의 차-	31
〈표Ⅳ-3〉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 -----	32
〈표Ⅳ-4〉 공격성 소(하위)척도의 사전-사후 평균의 차 -----	33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의 차 -----	34
〈표Ⅳ-6〉 주장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	36
〈부록1〉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	50
〈부록2〉 상담과정 기술(행동관찰) -----	72
〈부록3〉 주장성 척도-----	81
〈부록4〉 공격성 척도 -----	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 짐에 따라 청소년문제 특히 청소년비행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범죄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고 특히 청소년에 의한 강도, 강간, 폭행 등 강력비행, 미혼 십대의 임신과 성범죄, 마약 등 약물남용, 가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이운호는 최근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조직폭력 증가, 성범죄 증가, 집단비행 증가, 중류이상 가정 출신의 범죄증가, 마약 등 약물관련 범죄급증, 이유 없는 범죄증가로 제시하고 있다(이원석, 1998:재인용). 이는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인구증가, 산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화현상, 물질문명의 풍요에 비해 빈곤한 정신문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핵가족화, 성인들의 무분별한 생활태도로 인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혼란등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청소년 비행은 해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포화, 저연령화, 집단화되고 있다. 범죄백서(1996)와 대검찰청자료(1996)에 의하면 특히 학생범죄의 증가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1991년 대비 1995년 학생총수(중·고등·대학생)증가율은 11%인데 비해 범죄학생총수 증가율은 46%로 단순비교상으로는 35% 더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보호와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통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박성수 1992, 김명권 1990).

비행청소년의 적절한 지도를 위해서는 먼저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이나 행동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심리적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밝고 명랑하지 못하며 피로, 고민,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화를 잘 내며 반항적이고 충동적 파괴적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강하다(노안녕, 1983).

흔히 비행청소년들이 갖고있는 정서적 장애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즉 남에게 거절당하고 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여러 면에서 욕구불만을 갖고있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정생활, 학교 교우관계에서 열등의식, 질투심, 비관, 흥분, 우울등의 감정이 많다(노안녕 1983).

Quay(1983)는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공격적 행동특성, 위축된 행동특성, 미성숙한 행동특성으로 분류했고 김보경(1993)에 의하면 공격적 행동특성의 청소년들은 빈번한 싸움, 욕설, 사회적 권위에 대한 반항,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지나치게 높은 동기, 죄악감의 부재로 인한 폭행, 강도, 강간 등의 비행으로 나타나며 위축행동을 보이는 비행청소년들은 남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서 우울감, 열등감, 과에민성 등을 갖고 이를 방화,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같은 비행 행동으로 표출시킨다고 하며 미성숙한 비행청소년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행동을 못하고 수동성, 공상, 자신감 결여 등으로 절도와 같은 비행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불안, 공격성이 높으며 미숙하고 자기통제력 부족, 비합리적 사고방식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주장성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장훈련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주장훈련은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비주장 행동원인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고 주장행동요소를 훈련시키는 대인관계 기술로서 Wolpe(1958)가 처음으로 "주장적(assertive)"이라고 부른 이래 Spence 와 Marziller(1981)등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1980년도에 처음으로 주장훈련이 실시되었으며 그후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효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타당성과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김성희, 1982: 흥경자, 1982: 노안녕, 1983:재인용) 그후 윤진보(1988), 심후섭(1989), 김두규(1989), 이현경(1991), 김규탁(1992)등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김성희는 1980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주장행동요소(1984), 주장훈련 프로그램 효과(1986), 주장훈련 방법(1991) 등 꾸준히 주장훈련의 연구, 발전에 힘써왔다.

주장훈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김성희(1982, 1986, 1991)의 연구, 교사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Woodpentz(1980)의 연구,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Spence 와 Marziller(1981)의 연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안녕(1983)의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윤진보(1988)의 연구, 아동을 대상으로한 이현경(1991)의 연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Cianni(1986)의 연구가 있는데 이중 Cianni(198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장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장성 향상이나 공격성 감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첫째, 연구대상은 주로 청소년들이고 둘째, 문제별로는 공격적인 사람에게 주장성 향상을 위해서 비행청소년이나 정신과 환자등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교정 및 치료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고 셋째, 주장훈련 실시 후 측정된 변인들을 보면 주장성과 공격성을 재는 척도가 가장 많았다. 넷째, 방법면에서는 종합화된 프로그램으로 본보기(modeling), 역할연기(role-playing), 피드백(feed-back), 사회적 강화, 사회적 학습, 과제물 주기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각 기법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의 구성요소를 달리하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윤진보, 1988;재인용).

비행청소년의 치료적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비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년비행의 개선이나 교정에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비행원인으로 규명된 개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지만 제거한다고 해서 바로 비행이 교정된다는 함수관계도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비행의 원인제거보다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학습론적 방법을 교정내용으로 하는 경향이다(이상률,1996).

또 최근에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데 개인상담이나 개인치료 보다는 집단상담 또는 집단훈련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이현경, 1991) 이러한 집단상담의 한 방법인 주장훈련 방법은 비주장행동원인과 관련지워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까지 개발된 주장훈련 방법은 다양하지만 비주장행동의 원인과 관련지워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주장행동 기술습득을 통해 주장행동을 신장시키려는 행동적 주장훈련(behavioral assertiveness training : BAT) 방법, 주장행동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사고의 감소를 통해 주장행동을 신장시키려는 인지적 주장훈련(cognitive assertiveness training : CAT) 방법, 주장행동을 방해하는 불안감소를 통해 주장행동을 신장시키려는 정서적 주장훈련(emotional assertiveness training : EAT)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장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장훈련을 비주장행동 원인별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시행한

연구는 김성희(1991)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비주장원인별 주장훈련방법이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비교”에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주장훈련으로 세분하여 연구한 것이 처음이고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을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연구된 바가 지금까지 없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자 할 때 치료방법의 문제는 확일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한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주장행동방법을 가르치는 집단상담방법인 주장훈련, 그중에서도 행동적 주장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과 공격성이 주장훈련 실시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구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비행청소년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의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비행청소년들에게 행동적 주장훈련을 실시했을 때 주장성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동적 주장훈련을 받은 상담집단 비행청소년들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보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얼마나 주장행동이 향상될 것인가?

둘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공격성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가?

셋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원들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설 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검사 득점은 높아질 것이다.

1-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 득점은 사전검사득점보다 높을 것이다.

1-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 득점은 비교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 설 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검사 득점은 낮아질 것이다.

2-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득점은 사전검사 득점보다 낮을 것이다.

2-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 사후검사득점은 사전검사득점보다 낮을 것이다.

2-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사후검사득점은 비교집단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 장소 등 수용시설 특성상의 문제로 바람직한 래포(Rapport)형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훈련효과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둘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비교적 비행질이 불량하거나 상습화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상담관련기관, 단체에서 접촉하는 광의의 비행소년들에게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4. 용어의 정의(用語의 定義)

이 연구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여진 개념은 아니지만 중요하면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다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유사개념과의 관계 등은 이론적 배경에서 취급한다.



1) 행동적 주장훈련(behavioral assertiveness training: BAT)

행동적 주장훈련은 시범(modeling), 역할연기(role-playing), 지도(coaching), 강화(reinforcement), 귀환(feed-back)등을 통해 주장행동의 구체적 요소를 표현하는 요령 또는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주장훈련을 의미한다.

2) 주장행동(assertiveness behavior)과 주장성(assertiveness)

주장행동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하는 바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주장척도(assertiveness scale : AS)로 측정된 행동을 주장행동이라 하고 이 연구에서는 주장성과 주장행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3) 공격성(aggresion)

공격적 행동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견해와 행동의 동기를 중요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억압, 분노, 적대감 때문에 언어나 신체적 행동을 통하여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동을 의미한다.

4) 비행청소년(delinquent juvenile)

관점에 따라 나라마다 법률마다 약간씩 연령이나 의미를 달리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과 같이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행동치료, 주장행동의 의미와 요소, 공격성의 의미와 원인 그리고 행동적 주장훈련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비행과 행동치료

1) 청소년 비행의 의미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치 못한 단계에 있는 과도기의 인간을 총칭하며 전문분야의 관점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성장 및 정신적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층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김한곤, 1993). 나라에 따라서는 이태리, 스위스 등은 14세이상 18세미만, 핀란드는 16세이상 18세미만, 프랑스는 13세이상 18세미만, 영국은 8세이상 17세미만이고,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이주오, 1995). 우리나라의 경우도 입법취지에 의해 상한선을 달리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자를 연소자 또는 아동으로, 민법과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제한이 나라에 따라 또는 입법취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비행이란 말의 의미는 이를 쓰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비행이란 청소년들이 행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비난이나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를 말한다. 비행이란 말의 유래는 1899년 미국 시카고시의 소년재판소설치법인 “부조를 요하는 방임된 소년 또는 비행있는 소년(Juvenile delinquency)의 처우 및 감독을 규정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된 후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쓰고있는 법률적 개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비행이란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소년법원의 심리에 부칠수 있는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는데 내용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12세이상 20세미만으로서 부모의 감독 불복종, 무단가출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같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령층이나 비행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입법취지 또는 전문분야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비행청소년이라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특성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많은 원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비행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그래서 청소년비행의 연구는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유혜경, 1986).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이 낮기 때문에 비행을 하게 된다는 연구(Kaplan, 1980)가 있는가 하면,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아 자신을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서 비행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으며 또한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욕구를 반 사회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연구(Rutter 과 Giller, 1984 : Goldstein, 1984, 1986)들이 있고 또 비행청소년들은 외적 통제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Thatcher, 1983 : Paul Yarish, 1986-유혜경, 1986:재인용).

박태수(1996)는 정서가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사회가 보여주는 온갖 비행적요소들, 특히 사회의 유해환경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형성하게 한다고 했으며, 김한곤(1993)은 통제력이 약화된 가정적요인, 빈부에 의한 경제적요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요인, 사회규범 등 신앙이 약화된 사회문화적 요인이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성수(1992)는 청소년 이상심리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일시적, 탐색적 경향의 실험적 비행, 관심획득, 복수 등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신경증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경증적 비행, 반사회적 성격 등 성격장애가 원인이 되는 성격적비행,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병적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는 달리 Quay(1983)는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가지 행동특성들로 유형화하였다. 즉 공격적인 비행 청소년들은 싸우고 파괴하는 행동에는 익숙해 있지만 자신을 통제한다거나, 남과 상의한다거나, 남의 허락을 구한다거나, 타인과의 갈등을 피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던가, 타인이 분노를 보일 때 적절히 대응한다던가 등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능숙하지 못하며 위축된 비행청소년은 타인과 대화를 한다든가, 타인과 어울린다든가, 당황스러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든가, 명료한 결정을 위해 어떻게 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나타낸다든가, 타인의 설득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모순되는 지시에 어떻게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든가 등에 능숙하지 못하며, 미성숙한 비행청소년은 타인들로 부터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든가,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든가, 집단적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목표설정이나 주의집중하는 일 등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한다(Quay,1983: Goldstein Robert, Sprafkin, Gershaw 와 Klein, 1980, 유혜경, 1986 재인용).

이상과 같이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청소년 비행원인을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범죄원인을 생각하면 환경적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위비행(status offense)를 포함한 청소년 비행을 얘기하자면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 심리적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계층이 아닌 중·상류계층 자녀들의 일탈행위 등을 설명하자면 개인 심리적 요인을 중요시 않을수 없다. 이러한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비행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상담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더욱 부각되고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용시설 내에서의 행동치료

수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초기 연구들의 대부분은 1960년대부터 1975년에 걸쳐 미국 청소년 위원회 California 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것들이다. 수용시설 내의 대표적인 행동치료계획으로는 조작적 조건형성에 기초한 token economy를 적용한 CASE(Contingencies Applicable for Special Education)가 있다.

CASE-I (Cohen, Filipczak와 Bis, 1968)은 16명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수행과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기 위하여 token system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계획의 성공으로 CASE-II(Cohen, Filipczak, 1971)를 확대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학업과 함께 사회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token economy가 실시되었다.

이 계획의 시행결과 평균 지능지수 (IQ 93에서 IQ 105로 증가)와 성취도측정점수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재범률도 이전엔 출소 1년내에 76% 이었던 것이 36%로, 2년내에는 26%로 감소하였다(김명권, 1990).

이외에 모델링에 기초한 행동치료가 Sarson(1968, 1973)에 의해 이루

졌다. Sarson은 부적절한 학습경험들을 비행의 시초로 보고 모델링 경험에 의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의 치료과정은 시범, 역할연기 그리고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치료시간은 특정한 주제들(예컨대 비행에 대한 동료의 유혹과 압력을 거절하기, 미래의 보다 가치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즉각적인 충족을 지연시키기)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모델링이나 토론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생활태도, 행동변화 그리고 재범율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김성희, 1990).

주장훈련도 비행청소년 치료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 Spence 와 Marziller(1981)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델링, 역할연습, 피이드백, 사회적 강화 및 과제물 내어 주기로 구성된 주장훈련을 실시하여 친절성 증가, 불안 감소, 자존심, 자기통제 등의 주장행동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명권, 1990. 노안녕, 1983).

노안녕(1983)은 비행청소년의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주장훈련 효과를 측정해봄으로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년원에서의 행동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피험자는 남자 소년원생 45명으로 주장훈련 집단, 토의집단, 그리고 비교집단에 각각 배정하여 강의, 역할연습, 행동시연, 피이드백, 모델링, 과제물 주기등으로 훈련시킨 결과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이외 우리나라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연구들을 보면 이강희(1994)는 친사회행동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 20명을 선발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10명씩 배정한후 상담집단에 대하여 Goldstein등(1980)의 시범-시연-강화-훈련전이 모형의 친사회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에 적합하도록 변안한 50개의 프로그램으로 4개월동안 주 2회 90분씩 훈련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 되었다. 이외에도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이미향, 1993), 분노통제훈련이 소년원생의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임태숙, 1991), 비구조적 감수성훈련이 소년원생들의 공격성,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하는 연구(김명권, 임승환, 1989) 그리고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과 내적통제를 높여주었다고 하는 연구(박국향, 1991 : 장병운, 1996) 등이 있다.

위의 연구논문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자 할 때 치료방법의 문제는 확일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한(간편지능검사에서도 언어성보다 동작성이 대부분 높게 나타남)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주장행동양식을 가르치는 집단상담방법인 주장훈련, 그중에서도 행동적 주장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장행동의 의미와 요소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주장행동은 보는 관점이나 학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장행동의 정의와 주장행동과 다른 행동과의 비교를 통해 주장행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주장행동(assertiveness behavior)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학습된 행동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음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나의 생각, 욕구, 느낌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 욕구, 느낌 등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서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으나 말할 때의 음성이나 태도 등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서 안된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술을 권할 때 자신이 술을 먹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는 태도나 음성등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상대방이 무시당한 느낌이나 놀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학습된 행동”이란 대하는 장면에 따라 주장행동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학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장행동이 선천적인 어떤 성격특성에 의한다기보다도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다는 것은 바른 훈련과 같은 어떤 학습과정을 통해 주장행동이 학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성희, 1991).

어원적으로 주장행동이란 용어는 Sazter (1949)가 말한 흥분반응에서 유래하고 Wolpe (1958)는 흥분반응 대신 주장반응이란 표현을 권장했으며 이후 흥분반응을 주장반응 또는 주장행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후 Alberti 와 Emmons (1970)은 타인의 권리나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Rakos (1980)등은 주장행동이 학습된 행동임을 밝히고 있다(윤진보, 1988).

주장행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주장행동이 아닌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주장적 행동과 비교해 본다.

소극적 행동(passive behavior)은 자신의 사고, 느낌, 신념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쉽사리 무시할 수 있게 하는 변명, 수줍은 표현을 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게되는 행동을 말한다.

공격적 행동(aggressive behavior)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행동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하거나 창피를 주는 것이다.

이상의 구별을 고려하여 Alberti 와 Emmons (1970)가 구분한 소극적 행동, 주장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Ⅱ-1>와 같다.

<표Ⅱ-1> 소극성, 주장성, 공격성의 행동특징, 감정, 결과에서의 비교

구별 세목사항	소극성	주장성	공격성
행동의 특징들	자신의 욕구, 권리표현을 못함	자신의 욕구, 권리표현	타인을 희생하여 욕구, 권리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나 누군가를 희생하도록 표현
	자기부정적	자기향상적	자기향상적
	타인에게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	인간적 권리를 유지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부적절한 적의와 과잉반응 및 타인을 멸시하거나 창피를 줌
행동을 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불안, 자기에 대한 실망과 뒤늦게 분노	좋은감정 확신감	당당한 우월감, 분노, 나중에 죄의식
타인이 느끼는 감정	안달, 초조, 동정, 연민, 넉넉	존중	분노, 원한, 복수심
결과	바라는 목표 불성취	목표성취	타인을 희생하여 목표성취

주장행동의 정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행동이 주장행동인지 변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장행동의 구체적 요소를 알아야 한다.

김성희(1984)가 제시한 14개의 주장행동요소와 그후 연구자들에 의해 추가된 요소 등 20개의 구체적 주장행동요소를 영역별로 제시하면 <표Ⅱ-2>과 같다.

〈표 II -2〉 영역별 주장행동요소

영역별요소	방법 및 내용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한 표현(expressing) ○ 정직한 표현(honest) ○ 직접적 표현(direct) ○ 대화초기에 요점 제시(said early)
상대방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말을 경청(listening) ○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 예절을 지킨다. (polite) ○ 이유설명 (belief honest explanation) ○ 타협안 제시(suggest compromise) ○ “나” 메시지 이용 (“I” message)
음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억양(lively intonation, fluent inflection) ○ 또렷한 음성(clear voice) ○ 단호한 음성(firm voice) ○ 알아들음수 있는 억양(loud voice) ○ 지속적 대화유지 (none hesitatin, no latency of responde)
체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거리유지(appropriate distance) ○ 적절한 시선 접촉(good eye contact) ○ 적절한 몸짓(appropriate gestures) ○ 긴장 이완(relaxed body) ○ 진지한 표정(sincere face, facial expression)

위의 기본요소는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상대 등의 장면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 장면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내용과 관련된 장면적 요소 :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긍정적 행동을 보이는 능동적, 긍정적 내용,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 자신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수동적, 긍정적 내용 등.
- (2) 상대방과 관련된 장면적 요소 : 상대방의 성(sex), 상대방의 나이(age),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등.
- (3) 상대방과의 친숙도와 관련된 장면적 요소 : 판매원과의 관계와 같은 형식적 관계,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와 같은 반복되는 중요관계 등.

위와 같은 요소들은 주장행동의 설명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주장훈련효과와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위의 기본적 요소와 장면적 요소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3. 공격성의 의미와 원인

Sazter(1949)나 Wolpe(1958)등 초기의 학자들은 주장적인 내용과 공격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Emmons (1970)와 Lazarus (1971)는 주장성과 공격성을 구별하였다.

Alberti 와 Emmons (1970)는 “나는 화낸다”는 반응은 주장적이거나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반응은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공격성의 정의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행동 그 자체” 라고 하는 행동주의자들이 취하는 행동적 정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정의이다. 전자의 경우는 행동의 결과를 중요시한 반면 후자의 정의는 동기를 중요시했다.

Berkowitz (1973)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격성이론가들은 후자의 정의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상해할 의도없이 실수로 해를 입힌 행동은 공격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량은(1981), Hilgard(1981), Berkowitz(1973)등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이다(윤진보, 1988, 재인용).

공격성의 원인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김성희 (1984), 윤진보(1988), 이현경(1991)등의 논문과 관계문헌을 참고로 하여 공격성의 원인을 유전에의해 형성된 본능론적 입장과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비본능론적 입장으로 크게 양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본능론적입장으로는 Freud(1959) 와 Lorenz (1966)가 대표

적인 학자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과 동물은 모두 선천적으로 공격적인데 동물의 공격행동은 개체보존, 종족보존, 집단내 질서유지등의 필요에 의해 발동되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욱 공격적이라고 보았다.

둘째, 비본능론적 입장으로는 욕구좌절 이론과 사회학습이론등이 있는데 Freud 사상의 영향을 받은 Dollard, J.(1939),에 의해 제시된 욕구좌절 이론은 Freud의 본능론을 따르지 않고 어떤사람이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그사람의 노력을 방해하면 공격 욕구가 발생 한다는 욕구좌절- 공격 이론이며, Bandura (1977)등의 사회학습이론은 공격적 행동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고, 관찰, 모방에 의해 학습된다는 이론이다(김성희 1991).

따라서 사회학습이론, 욕구좌절이론 등 후천적으로 형성된 공격성의 원인은 학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은 학습이론을 적용한 주장훈련에 의해 감소 시킬수 있다고 가정한다.

4. 행동적 주장훈련 방법 및 효과



주장(assertion, assertiveness)이라는 말은 행동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장훈련도 행동적 절차에서 시작되었으나(Wolpe 1958) 행동은 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지이론의 발달로 인해 주장훈련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는(Prescott, 1981) 등으로 주장훈련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주장훈련 방법의 다양화는 비주장행동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Rakos와 Schroeder(1980)는 비주장 행동원인을 행동적 원인, 인지적 원인, 정서적 원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에따라 주장훈련도 행동적 주장훈련, 인지적 주장훈련, 정서적 주장훈련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주장행동원인에 따른 주장훈련 방법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Ⅱ-3〉비주장행동원인에 따른 주장훈련 방법 및 대상

방법 및 효과 구 분	훈련방법	기대효과 큰 훈련대상
행동적 주장훈련	주장행동의 구체적 요소에 대한 시범과 역할연기를 통해 주장행동요소를 습득시키는 훈련	주장행동 기술이 부족하여 주장행동을 못하는 사람
인지적 주장훈련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치시키는 훈련	비합리적 사고 때문에 주장행동을 못하는 사람
정서적 주장훈련	이완훈련 등 불안을 직접 줄이는 훈련	불안의 수준이 높아 주장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비주장행동의 원인을 감소시키고 주장행동요소를 습득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행동적 주장훈련 (behavior assertiveness training)이라고 한다.

행동적 주장훈련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상담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김성희(1991)에 의하면 행동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Wolpe(1973)와 같이 행동적 상담을 협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Pavlov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과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 근거한 상담만을 행동적 상담이라고 하여 사회학습이론이나 자기통제 이론은 행동적 상담의 이론적 근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Corsini(1979) George와 Cristiani(1981), Corey(1986) 등 대부분의 상담이론가들은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을 적용한 상담도 행동적 상담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적용한 주장훈련은 주로 조건형성이론의 강화(reinforcement), 변별(discrimination), 소거(extinction)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강화란 어떤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나 강도를 증가시키

는 것이고 변별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나 강도를 증가시키는 자극 또는 반응과 그렇지 않은 자극이나 반응을 구분하는 것이며, 소거란 이미 어떤 행동할 가능성과 강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그 가능성과 강도를 줄이거나 강화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김성희, 1991).

강화, 변별, 소거와 같은 행동주의 학습원리는 바로 인간행동의 수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소극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에는 강화를 주지 않고 주장적 행동에만 강화를 주게 되면 강화를 받는 주장적 행동은 습득되어 계속 유지되지만 강화를 받지 못하는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소거될 것이다. 주장행동을 촉진시키는 한 방법으로 Wolpe(1973)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주장행동을 연습하는 행동연습(behavior rehearsal)을 강조했는데 행동연습은 Mouton(1980) 등이 강조한 역할연기, Bandura(1977)의 모방학습이론의 일부가 통합된 것으로 반복해서 연습한다는데 더 강조점이 있을 뿐 행동연습의 핵심은 역할연기이다.

주장행동의 기술연습으로는 시범(modeling), 관찰(observation), 역할연기(role-playing), 지도(coaching), 행동연습, 지도자에 의한 피드백, 실제장면에서 주장행동을 하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등이 있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녹음 및 녹화 테이프에 의한 피드백이 매우 효과적이다.

주장훈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김성희(1982, 1986, 1991)의 연구, 교사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Woodpentz(1980)의 연구,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Spence 와 Marziller(1981)의 연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안녕(1983)의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윤진보(1988)의 연구, 아동을 대상으로한 이현경(1991)의 연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Cianni(1986)의 연구가 있는데 이중 Cianni(198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행동학습이론에 근거한 행동적 주장훈련은 강화, 역할연기, 그리고 행동연습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참가자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은 배려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분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 연기에 중점을 두어 반복 연습시키고 비디오테이프 녹화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직후에 바로 자신의 역할연기 모습을 보면서 수정해 가는 훈련방법으로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소년원에 재원중인 남자원생 20명이다. 주장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10명으로 상담집단을 구성하였고, 비교집단 10명은 사전-사후검사에만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자의 특성분류

유형별		집단별	
		상담집단	비교집단
비행	절도 등	9	9
	강간 등	1	1
나이	14세 - 15세	4	5
	16세 - 19세	6	5
학력	중1-중2재학	5	7
	중3-고2재학	5	3

두집단의 유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훈련시작 3일전에 주장성검사와 공격성검사를 실시하여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표Ⅲ-2>와 같이 두 집단은 유사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표Ⅲ-2〉상담·비교집단의 주장성 및 공격성척도 사전검사 결과

구 분		N	X	SD	t	유의도
주장성검사	상담집단	10	294.00	27.61	-.10	N.S.
	비교집단	10	295.10	21.28		
공격성검사	상담집단	10	38.50	7.38	.23	N.S.
	비교집단	10	37.70	8.13		

2. 설계와 절차

1) 설계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채택된 실험설계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Ⅲ-3〉 실험설계

O ₁	X	O ₂
O ₃	-	O ₄

O₁ : 상담집단 사전검사 O₂ : 상담집단 사후검사

O₃ : 비교집단 사전검사 O₄ : 비교집단사후검사

X : 상담집단에게는 프로그램 실시

- : 비교집단에게는 프로그램 미실시

사전검사에서는 훈련에 들어가지 전에 두집단의 유사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장성검사와 공격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집단에 행동적주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후 두집단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로 주장성과 공격성검사를 실시하였다.

2) 절차

연구대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집단 10명과 비교집단 10명을 선정하여 상담집단에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역할연기에서는 주로 2명이 1개조로 연습하였고 상황에 따라 4-5명이 1개조로 연습하기도 했다. 연구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97. 10. 2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집단상담실에서 90분씩 8회 4주 동안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1주안에 걸쳐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원생의 신청을 받았다.
- (2) 1997. 10. 9 주장행동검사와 공격성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3) 1997. 10. 14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훈련을 실시하였다. 상담교사의 협조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되돌려 보며 피드백(feedback)을 받고 훈련도중 또는 전후에 발생하는 일화나 행동관찰을 기록하여 훈련에 참고하였다.
- (4) 1997. 11. 7 훈련을 종료하고 다음날 사후검사를 하여 훈련효과를 측정하였다.

3)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Rakos 와 Schroeder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할수 있도록 만든 주장훈련프로그램 중 행동적주장훈련 부분만을 발췌하여 소년원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성희의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비주장행동의 행동적 원인을 감소시키고 주장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습득해야 할 여러가지 기술을 시범, 역할연기, 지도, 강화, 귀환(feed-back)의 기법을 통해 습득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 수정사용한 행동적 주장훈련프로그램은 매회 90분씩 8회분으

로 구성되었는데 ① 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② 목표행동에 대한 시범 및 역할연기 ③ 역할연기에 대한 평가 및 교정, 숙달연습 ④ 느낌 표현 및 마무리 순으로 짜여있다.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표Ⅲ-4)와 같다(세부적인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부록1참조).

〈표Ⅲ-4〉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내용

훈련 회수	행동적주장훈련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	진행 방법	준비물
1	주제 : 훈련안내 및 자기소개 목표 : 친밀한 관계형성 주장훈련에 대한 이해	훈련의 목적 및 방법 소개별 칭 설명을 하면서 자기소개	크레파스 유인물1 명찰 갱지
2	주제 : 주장행동 변별훈련 목표 : 주장행동과 비주장 행동 변별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3	주제 : 주장행동요소 훈련1 목표 : 주장행동의 내용(자기 표현 및 상대방 고려) 및 방 법적 요소 익히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2).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4	주제 : 주장행동요소 훈련II 목표 : 주장행동의 음성적요 소와 체언적 요소 익히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2).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5	주제 : 형식적 관계 주장훈련 목표 : 형식적 관계에서 주장 행동하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3).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6	주제 : 중요한 관계 주장훈련 목표 : 반복되는 중요한 관계 에서 주장하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4).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7	주제 : 친밀한 관계 주장훈련 목표 : 친밀한 관계에서 주장행 동하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5). 무비카메라 비디오테프 TV, 명찰
8	주제 : 대중관계 주장훈련 목표 : 여러사람 앞에서 주장 행동하기	1. 강의 2. 역할연기 3. 피이드백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유인물(6). 무비카메라 T6V, 카드, 명찰.

3. 도 구

본 연구를 위해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전-사후에 주장성과 공격성 검사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장척도(Assertiveness Scale : AS)

김성희(1990)가 개발한 주장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0문항 평정척도로 부정문과 긍정문이 다음(표Ⅲ-5)와 같이 혼합되어 있다.

〈표Ⅲ-5〉 주장척도 문항구분

구 분	문항수	문 항 번 호
긍정문	38	2, 4, 7, 8, 10-14, 16-20, 32, 33, 35, 47, 48, 50, 61-65, 71-73, 79, 80, 91-95번
부정문	62	1, 3, 5, 6, 15, 21-31, 34, 36-46, 49, 51-60, 66-70, 74-78, 81-90, 96-100번

채점 방법은 긍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에 반응한 점수는 "거의 불일치"를 1점, "대체로 불일치"를 2점, "반정도 일치"를 3점, "대체로 일치"를 4점, "거의 일치"를 5점으로 채점하고, 부정문에 반응한 점수는 긍정문에 반응한 점수와 반대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주장척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주장적이고 적게 받을수록 비주장적이라고 해석한다. 타당도 산출을 위한 Spearman -Brown공식의 기우반분 신뢰도는 .96이며 2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다(부록3참조).

2) 공격성 검사

Buss와 Da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4명의 심리학자(오수성, 이종목, 조공호, 홍경자)로부터 문항수정을 받아 만든 것이다. 이 검사는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원한, 의심의 7가지 소척도로된 75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채점방식은 일반 문항에서는 “예”에 표기된 것을, 도치된 문항에서는 “아니오”의 표기된 것을 1점, 그 반대로 표기된 것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75이다. 모든 문항은 강제 선택식 진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개 문항중 15개 문항(1, 10, 17, 20, 27, 34, 39, 50, 55, 63, 66, 67, 71, 72, 74)은 도치되어 있어 평점의 점수를 거꾸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내 모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N=5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이다(부록4참조).

3) 상담집단구성원의 행동관찰

자기보고형식의 검사 결과를 보완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을 관찰 기록하여 연구결과, 해석에 참고 하였다(부록2참조).

4. 자료처리

자료는 채점한 다음 SPSS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산처리, 통계적 해석등의 순서로 처리하였다.

주장척도와 공격성척도 변화로 가설검증을 하기위해 먼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전검사로 유사집단임을 확인하고 상담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평균

의 차이 그리고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 공격성 검사의 소(하위)척도인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전-사후검사 득점 평균으로 변화정도를 알아보고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모든 절차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1-1 :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득점은 사전검사 득점보다 높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의 상담집단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사후검사간의 주장성 척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상담집단의 주장성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

구분 집단	주장성			t 값	유의도
	N	X	SD		
사전검사	10	294.00	27.61	-2.26	p <.05
사후검사	10	329.40	41.10		

위의 <표IV-1>에 의하면 상담집단의 사전검사평균이 294.00이며 사후검사 평균은 329.40으로 상담집단 사후검사평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설 1-1>이 수용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주장성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관찰해 본 결과 훈련 2회까지는 나서기 좋아하고 장난 잘 치는 2명(내남편, 도둑고양이)을 제외하고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자기할말도 잘 안하던 집단원들이 3회부터는 역할연기 할 때 주장적인행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6회부터는 눈에 띄일 정도로 변화가 나타나는 집단원들이 많아져 집단원 10명중 6명이 제법 솔직하고 분명하게 자기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훈련결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태도는 미흡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표시하는등 의견상으로도 주장행동을 훈련전보다 훨씬 잘하는 것으로 관찰결과에서도 나타나 주장성이 향상됐다는 통계수치의 신뢰도를 뒷받침해 주고있다.

가설 1-2 :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사후검사특점은 비교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상담집단 사후검사와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간의 주장성 척도가 어느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IV-2> 와 같다.

<표 IV-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의 차

구분 집단	주장성			t 값	유의도
	N	X	SD		
상담집단 사후검사	10	329.40	41.10	2.17	P<.05
비교집단 사후검사	10	297.70	21.17		

위의 <표IV-2>에 의하면 상담집단의 사후검사의 평균이 329.40이며 비교집단의 사후검사의 평균은 297.70으로 상담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1-2>가 수용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을 받은 집단은 받지않은 집단보다 주장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 훈련방법, 실시횟수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장훈련으로 상담집단의 주장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현경(1991)의 연구결과와만 다를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희(1982)의 연구결과, 교사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Woodpentz(1980)의 연구결과와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Spence & Marziller(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1 :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득점은 사전검사 득점보다 낮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의 상담집단의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사후검사간의 공격성 척도가 어느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전·사후검사 평균의 차

구분 집단	공격성			t 값	유의도
	N	X	SD		
사전검사	10	38.50	7.38	.51	N. S.
사후검사	10	36.50	10.03		

위의 <표IV- 3>에 의하면 상담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이 38.50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6.50으로 상담집단의 사후검사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후에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특점은 사전검사특점보다 유의하게 낮을것이다. 라는<가설2-1>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훈련3회까지는 소극적행동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집단원들이 많았고, 특히 내남편(별칭)은 곧잘 언성을 높이고 집단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횟수가 거듭할수록 상담집단원들의 공격적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실제행동관찰기록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가설 2-2 :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
사후검사 특점은 사전검사특점보다 높을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공격성 소(하위)척도의 사전-사후 평균의 차

검사		사 전			사 후			t
		N	X	SD	N	X	SD	
상담집단	신체적공격성	10	6.7	1.34	10	4.9	1.37	2.973*
	언어적공격성	10	8.2	2.78	10	7.6	3.27	.442
비교집단	신체적공격성	10	6.8	1.23	10	6.5	1.35	.519
	언어적공격성	10	6.6	2.07	10	6.7	2.00	-.110

*P<.05

프로그램 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득점은 사전검사득점보다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2-1〉이 기각되어 공격성 감소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격성척도의 소(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폭행, 75개문항중 10문항)과 언어적 공격성(75개문항중 13문항)의 변화여부를 별도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담집단의 신체적 공격성 사전검사득점은 6.7이고 사후검사득점은 4.9 ($t=2.973$)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적 공격성은 사전검사에 비해 공격성 점수가 사후검사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교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을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격성 소영역인 신체적 공격성만은 행동적 주장훈련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결과는 주장훈련이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Staube(1981)의 연구결과, 이현경(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2-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사후검사득점은 비교집단보다 낮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상담집단 사후검사와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후검사간의 공격성 척도가 어느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

구 분 집 단	공 격 성			t 값	유의도
	N	\bar{X}	SD		
상담집단 사후검사	10	36.50	10.03	.49	N. S.
비교집단 사후검사	10	38.50	8.11		

위의 <표Ⅳ-5>에 의하면 상담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이 36.50이며 비교 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은 38.50으로 상담집단 사후검사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설 2-3>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통계는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시사하고있다.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원들로 훈련에 대한 열의가 높았고 집단의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주장훈련결과 공격성감소효과가 나타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상이한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훈련프로그램의 내용 불충분이나 행동치료에 대한 연구자의 능력부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훈련대상자 선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년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공격성이 높은 소년들 만으로 상담집단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성이 낮은 집단원에게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격성의 높고 낮은 기준이 설정된 것은 없으나 공격성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장훈련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노안녕(1983)의 연구대상자 45명의 공격성 사전검사평균득점은 40.41이고 윤진보(1988)의 연구대상자 20명의 공격성 사전검사평균득점은 46.90으로 본 연구의 훈련대상자 20명의 공격성 사전검사평균득점 38.10과 비교해볼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공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규칙생활을 하여 수동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 수용시설에서, 보다 충분한 훈련효과를 얻기 위해 숫자가 많지 않은 모집단에서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원생들로 연구집단을 구성하다보니 공격성이 높은 원생들만을 선발하여 연구집단을 구성 할 수 없었다. 모집단 숫자가 많은 시설에서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년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면 공격성 감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가설 3의 검증

가 설 3 :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담집단의 주장성과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공격성, 공격성(신체적·언어적)간의 상관관계는 <표IV-6>과 같다.

<표IV-6> 주장성과 공격성의 상관관계

공격성 주장성	신체적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공격성(신체적+언어적)
주장성	.105	.072	.032

<표IV-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훈련실시의 상담집단 주장성검사와 공격성 검사결과와의 상관을 알아 본 결과, 주장성과 신체적 공격성간에는 상관이 .105, 주장성과 언어적 공격성간에는 .072, 주장성과 공격성(신체적+언어적)간에는 상관이 .032로써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결과는 훈련방법,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을한 이현경(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에게 행동적 주장훈련을 시켜 주장행동이 얼마나 신장되고 공격성이 얼마나 감소되는가를 알아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비행청소년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얼마나 주장행동이 향상될 것인가?

둘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공격성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가? 또 공격성 소척도 중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인가?

셋째,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원들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설 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검사 득점은 높아질 것이다.

1-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검사 득점은 사전검사 득점보다 높을 것이다.

1-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행동 사후 검사 득점은 비교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가 설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검사 득점은 낮아질 것이다.

2-1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득점은 사전검사 득점보다 낮을 것이다.

2-2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 사후검사득점은 사전검사득점보다 낮을 것이다.

2-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공격성 사후검사 득점은 비교 집단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3. 훈련실시후 상담집단의 주장성과 공격성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제주소년원 님 자원생 20명을 선발하여 상담집단 10명에게는 집단상담실에서 행동적 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주2회 90분씩 8회를 실시 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만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Buss와 Da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홍경자등 4명의 심리학자로부터 문항 수정을 받아 만든 공격성검사와 김성희(1990)가 개발한 주장척도이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사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을 위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향상에 .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영향을 주었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주장성척도 사전검사 득점 평균에서 상담집단은 294.00, 비교집단은 295.10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 득점평균에서는 상담집단이 329.40, 통제집단이 297.70으로 유의있는 차이($t=2.17, p<.05$)가 나타나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 신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05수준에서 유의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공격성척도 사전검사 득점평균에서 상담집단은 38.50, 비교집단은 37.70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고 사후검사 득점평균에서 상담집단은 36.50, 비교집단은 38.50으로 상담집단의 점수평균이 2점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있는 차이 ($t = .49, p > .05$)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공격성소척도 분석에서 언어적 공격성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신체적 공격성만은 사전검사에서 상담집단 득점평균이 6.7이고, 비교집단득점 평균은 6.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 득점평균은 4.9, 비교집단득점 평균은 6.5로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훈련 실시 후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 감소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향상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공격성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다만 공격성 소영역인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고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 감소 간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다.

2.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신장과 공격성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 2) 행동적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나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는 효과가 있다.

- 3) 행동적 주장훈련을 받은 비행청소년의 주장성 향상과 공격성감소간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 신장과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상담, 심리치료, 교정교육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 언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행동적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주장행동 신장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적 훈련효과(3개월, 6개월, 1년 등) 측정연구가 요청된다.
2. 지금까지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장훈련 효과연구가 남자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여자원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3.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비행별, 연령별, 성격유형별, 최초의 비행과 재비행 소년별로 구분하여 연구해보면 더욱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규탁(1992). "행동적,인지적 주장훈련이 국민학생의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두규(1989). "주장훈련과 다른 절차의 결합이 주장행동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김명권, 임승환(1989). "감수성 훈련이 비행소년의 공격성, 정신건강 및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춘천소년원.
- 김명권(1990). "비행청소년에 대한 임상적 접근", 임상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김정희, 이장호(1996).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김보경(1993). "소년원 단기처우원생을 위한 친사회행동기술훈련 프로그램".
대구소년원 연구보고서.
- 김성희(1982).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주장훈련 효과" 학생지도연구 제15권
제2호, 경북대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84). "주장행동요소" 학생지도연구 제17권제1호, 경북대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8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일반화된 주장훈련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학생지도연구 1986년 특집호, 경북대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1). "비주장 행동 원인별 주장훈련 방법이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비교".
계명대 박사 학위논문
- 김한근(1993). "청소년 비행예방 및 사회환경 개선", 문화체육부주관 청소년
육성시책 지역토론회 자료
-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문화체육부(1993). 「밝은사회 건전한청소년」
- 박국향(1991). "현실치료적 접근모형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통제부위
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박성수(1992). 「청소년범죄연구 세미나」(제10집)자료
- 박영숙(1993).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 박태수(1996). "지역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생생활연구소 제17집,
제주대학교

- 법무연수원(1996). 「범죄백서」
- 변창진, 김성희(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소, 경북대학교
- 유혜경(1986).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윤진보(1988). “주장훈련이 고등학생의 공격성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강희(1994) “친사회기술훈련이 비행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이미향(1993). “인지-행동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점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상률(1996).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정책”, 보호창간호, 법무부 보호국
- 이원석, 서상준(1998). 「청소년 교정복지학」, 신원사
- 이장호 (1993).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주오 (1995).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에 관한 연구”.
연구논집, 법무 연수원
- 이현경(1991). “주장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 및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임태숙(1991). “분노통제 훈련이 비행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 학위논문.
- 신진규(1984). 「형사정책」. 법문사.
- 심후섭(1989). “자기주장 훈련이 아동의 우울경향, 주장행동, 귀인양식 및 자
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장병운(1996). “소년원생들의 내.외 통제향방 변화수단으로서 개방집단과 폐
쇄집단을 통한 현실치료의 효과”, 경북대 석사 학위논문.
- 장혁표외 13인(1997).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차선화(1992).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 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범죄연구 제10집(1992). 법무부
-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1992, 세미나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선, 노안녕(1983). “집단훈련이 자기표현의 향상 및 공격성의 감소에 미
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제15집, 57-77. 전남대 학생생활연구소,
한국청소년연구(1994, 겨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기숙 역(1990). 「성격심리학」. 박영사

-
- Alberti, R.E., and Emmons, M. L. *Your perfect right :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CA : San Luis Obispo, Impact 1970.
- Carmody, T. P.(1978). Ration- emotive, self- instructional, and behavioral assertion training: Facilitating maintenance.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3), 241-253.
- Forman, S.G.(1980). A comparison of cognitive training and response cost procedures in modifying aggressiv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havior Therapy*, 11, 594-600.
- Goldstein, A.P., Sprafkin, R.P., Gershaw, N.J, & Klein, P(1980). *Skill-streaming the adolescent : A structured learning approach to teaching prosocial skills*. Research Press Co. Champaign, Illinois.
- Hartup, W.W(1974). Aggression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44 : 120-126
- Lazarus,A.A(1978). On Assertive Behavior : A brief note, *Behavior Therapy*, 4, 697-699.
- Quay,H(1983). Dimensional approach to behavior disorder : The revised behavior problem checklist, *School Psychology Review*, 12(3), 244-249.
- Rakos,R.F., and H.E. Schroeder(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Y. ;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okos, R.F.,& Schroder, H.E(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 Bio Monitoring Applications(BMA).
- spence, S.H. and Marziller, J.S(1979). Social skills training with adolescent male offenders : 1. short-term effects, *behaviour*

-
- research therapy*, 17, 7-16.
- Spence, S.H. and Marziller, J.S(1981). Social skills training with adolescent male offenders : 1. Short-term effec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7, 7-16.
- Sarson, I.G. and Ganzer, V.J(1973). Modeling and group discussion in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 delinquents, *J. Conseling Psychology*, 20, 442-449.
- Woodpentz, M.A(1980). Assertain training and trainer effect on unassertive and aggressiv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7, No. 1, 76-83.
- Wolpe, J(1973).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N.Y. : Pergamon press, 80-82.



< ABSTRACT >

The Effects of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on Assertiveness Behavior and Aggression
of Delinquent Adolescents

Lee Keon Bok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at if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will be how much influence on the behavioral assertiveness increasing and the aggressiveness decreasing of Juvenile delinqu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consultation of juvenile delinquent by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se hypotheses are established as follows :

Hypothesis 1.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test the behavioral assertiveness of counseling group will be increase.

1-1.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post-test the behavioral assertiveness of counseling group will be higher than the score of pre-test.

1-2.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post-test the behavioral assertiveness of counseling group will be meaningly higher than the score of comparative group.

Hypothesis 2.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test the aggressiveness of counseling group will be decrease.

2-1.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post-test of counseling group will be meaningly lower than the score of pre-test.

2-2.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post-test of physical aggressiveness and linguistic aggressiveness will be lower than the score of pre-test.

2-3.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score of post-test of counseling group will be lower than the score of comparative group.

Hypothesis 3.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re will have meaning interrelation between the

assertiveness and aggressiveness of counseling group.

To verify these hypotheses, I selected 20 students(men) who living in Che Ju Juvenile delinquent Training School. And I arranged them to training group for 10 members and controlled group for 10 members . The training group was applied the behavioral assertive program which was reorganized by Kim Seong Hoy and Byun Chang Jin(1980). And the training group were trained for eight times by 90 minutes during four weeks, the controlled group took part in only the post-test and pretest. All subjects were taken the pre-measures and post -measures, the measure tools were used assertiveness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Kim seong Hoy(1980) and the aggressiveness scale which was translated by Rho An Young(1983).

The SPSS computer program was used in management of Data. I executed the pre-test and post-test of the each group, and produced the average score, standard deviation of the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two groups.

By the results of T-test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but Hypothesis 3 and Hypothesis 4 was meaningless in statistics.

The results of Synthesis were as follows :

The First : After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 behavior as sertive-ness of delinquent adolescences was incr eased.

The Second : After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 aggressive behavior of delinquent adolescences reduced a little, but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statistics did not appear.

The third : After the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the meaning interrelation between the assertive rising and aggressive reduction did not appear.

In conclusion, It was appeared that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was an effective psysical cure program and aggressive behavior of delinquent adolescences was reduced a little. But, because the results of the this behavioral assertive training program wa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pre-test and did not appear the meaningly reduction effect, the results of these things is a problem to solve for next research.



〈부 록〉

〈부록1〉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세부내용	50
〈부록2〉 상담과정 기술(행동관찰)	72
〈부록3〉 주장성 척도	81
〈부록4〉 공격성 척도	90

〈부록 1〉

행동적 주장훈련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자기소개 및 훈련안내

1) 자기 별칭 소개

상호 이해와 친밀한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별칭짓기를 할 때 명찰과 종이를 나누어주고 별칭을 지은 이유를 종이에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 후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집단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먼저 모델링으로 자신의 별칭을 소개함으로써 집단원들이 자신의 별칭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이가에 대한 지침이 되게 한다. 한사람의 자기 별칭 소개가 끝나면 집단원들로 하여금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집단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한다(가벼운 화제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2) 훈련 안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서로 어울려 생활하다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참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비록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참을성이 있다거나 얌전하다는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주장훈련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소극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친구들중에는 별것도 아닌것에 욕을 하면서 화를 잘내는 친구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쾌감을 느

끼게 되겠지요. 화를 내고 욕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기분은 상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행동을 공격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소극적인 반응을 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인간 관계가 좋지 못하겠지요. 왜냐하면 소극적 행동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겠지요. 반면 공격적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되겠지요. 이것을 주장 행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훈련이 이러한 주장행동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하게 될 주장훈련 프로그램들은 먼저 주장행동을 비주장행동과 구별하는 훈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주장행동이 되는지를 알고 그런 다음 우리들이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장행동인지를 훈련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훈련한 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고 주장행동이 잘되었다던가 또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매주 2회 90분간으로 8회를 하겠습니다.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될것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도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 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주장행동 변별훈련

1) 강의

이번 시간에는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간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응하는 행동들이 주장행동이었던가 아니면 비주장행동이었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훈련에서 말하는 주장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거나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지만 말할때의 음성이나 태도 말투등과 같은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것"이란 자신의 권리, 요구, 의견, 생각, 느낌 등의 표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요구,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 등의 표현이 포함됩니다.

주장훈련에서 말하는 소극적행동이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내용, 음성, 태도 등 주장행동의 구체적 요소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소극적행동입니다.

공격적 행동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주장행동과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주장행동과 다릅니다.

2) 역할연기

가)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무작위로 집단원 개개인에게 던져 반응

하도록 하고 그 반응이 소극적인지 공격적인지 주장적인지를 집단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 〈예문〉 1. 너는 오늘 10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라
2. 네가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3. 옷이 단정치 못한데 게을러서 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4. 인상이 앓좋은데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가?
 5. 지도자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6. 우리 집단이 앞으로 잘 되어 갈 것 같은가?
 7. 누가 너에게 욕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8. 어제 저녁먹고 무얼 하였는가?
 9. 검정고시와 중장비 시험중 어느것이 더 어려운가? 이유는?
 10. 담임 선생님은 좋은 분인가? 이유는?

나) 집단원들 앞에 2명씩 짝을 지어 마주 보게 앉게한 후 자유롭게 역할을 정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여 보면서 대화의 내용중 소극적 반응, 공격적 반응, 주장적 반응을 구별하도록 한다.

3) 피이드백

집단원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마다 그것이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 주장적행동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집단원들이 변별해 보도록하고 역할연기에서는 한팀이 끝날때마다 바로 피이드백 해 주어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집단활동 동안 느낀점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한 후 공격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 그리고 주장행동의 차이점을 한번 더 인식시킨후 마친다.

3. 주장행동 요소 훈련 I

1) 강의

지난 시간에는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을 변별해 보았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주장행동이고 어떤 것이 비주장행동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주장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방법이나 그 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누어준 (유인물1)을 보십시오. 주장행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표현적 요소이며 또다른 하나는 상대방 고려적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표현적 요소를 보면,

첫째,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참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에 없는 지나친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화의 초반에 말합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말합니다.

여섯째,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요소로 상대방 고려적 요소를 보면,

첫째, 상대방의 나이, 직위 등에 맞게 예의를 지키면서 말합니다. 이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하되 예의를 지키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의없는 행동은 공격적 행동이 되겠지요.

둘째,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이해나 공감을 표시해 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넷째,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단지 “내 입장에서 한 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즉 “제가 들은 바로는 ...” “내가 보기에 ...” 등과 같이 자신이 한 말은 진리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한 말이고, 따라서 그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런 전달 방법을 “나-전달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니야” 또는 “너는 그렇게 해야된다”와 같이 지시나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너-전달방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전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섯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이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절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면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과 같이 자신이 하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을 자신이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절대 상대방을 놀리는 투의 말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여섯째, 자신이 하려는 말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는 거절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부탁할 경우는 부탁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타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등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서로 맞지 않으면 계속 노력하여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2) 역할연기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해주고 집단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한 쌍씩 차례로 마음에 드는 상황을 하나 선택한 후 파트너와 잠시 연습한 뒤에 역할연기를해보도록 하고 이를 녹화하여 보면서 피이드백 해준다.

상황설정 1 : 자신이 맡은 청소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상대방은 거절하는 역할).

상황설정 2 : 친구에게 운동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상대방은 거절하는 역할)

상황설정 3 : 이순신과 세종대왕중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토론한다(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

상황설정 4 : 외판원이 영어회화 테이프를 사라고 한다(상대방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

상황설정 5 : 직훈반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입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논한다(둘은 서로 친한 친구간이다)

3) 피이드백

한 쌍의 역할연기가 끝날때 마다 지도자와 다른 집단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1)의 내용에 비추어 피이드백을 해주고 역할연기를 한 사람의 소감을 들어 본다.

4) 느낌 발표

집단원들이 느낀 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 후 주장행동의 자기표현적 요소와 상대방 고려적 요소를 다시 한 번 상기 시켜주고 다음 시간까지 완전히 숙지해 오도록 한다.

주장행동 요소 훈련 1(유인물1)

주장행동의 방법	
자기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u>참지 않고</u> 말한다. 2. 마음에 없는 <u>지나친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고</u> 말한다. 3.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u>대화의 초반에</u> 말한다. 4.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u>솔직하게</u> 말한다. 5. 다른사람을 통하지 <u>않고 상대방에게 직접</u> 말한다. 6.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u>분명하게</u> 말한다.
상대방 고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의 나이, 지위 등에 맞게 <u>예의를 지키면서</u> 말한다. 2. 상대방의 말에 <u>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서</u> 자신의 말을 한다(경청). 3. 상대방의 말에 이해나 <u>공감을 표시해 준다(공감적 이해)</u>. 4. 자신의 말이 진리인것처럼 말하지 <u>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u>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한다.(나-전달방법 사용). 5.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u>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u>을 사전에 말해준다(상대방 감정 예견). 6. 자기가 하려는 말과 관련하여 <u>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u>. 7.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u>타협해 보려고 노력한다</u>.

4. 주장행동 요소 훈련 II

1) 강의

지난번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 할 것이가에 대해서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라고 했는데 잘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지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행동 훈련중에서 자신의 음성의 강약, 장단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장적이며, 또한 말을 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를 어느정도 유지해야 한다든가, 말할때의 자세와 몸짓 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2)를 보세요. 먼저 주장행동의 음성적 요소를 보면,

첫째 단호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필요이상으로 말끝을 길게 한다든가 생략해서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못할 수가 있겠지요.

둘째 또렷 또렷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흐릿한 목소리로 말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묻게 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해칠 수가 있겠지요.

셋째 생동감 있는 자연스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상황에 맞지 않게 떨린다거나 억지로 하는 목소리로 말하여서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큰 목소리나 작은 목소리는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는 도중에 “에-” “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에-” “음-” 등을 사용하게 되면 듣고 있는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행동의 체언적 요소를 보면,

첫째, 상대방과 50-160cm 정도의 거리에서 말합니다. 상대가 누구인가

에 따라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 주저하게 되면 그 말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하는 도중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서두르다 보면 해야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자신의 행동이 공격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말하는 동안에 상대방과 적절히 눈을 맞춥니다.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다면 말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몸짓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는 좋은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꼭 쥐다보면 그 말에 의문을 갖게 되겠지요.

일곱째, 손발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지개를 한 다든가 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여덟째,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 말합니다.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우면 듣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편한함을 갖게 될겁니다. 그럼 이러한 요소들을 잘 참작하여 역할연기를 해보겠습니다.

2) 역할연기

지난 시간에는 자기표현 요소와 상대방 고려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음성적 요소와 체언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지난 시간처럼 두명씩 짝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가끔씩 지난 시간에 짝이 아니었던 사람과 짝을 짓기 바랍니다. 잠시 연습한 후 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장면을 녹화하여 같이 보면서 피이드백 해준다.

상황설정 1 : 자신이 맡은 청소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상대방은 거절하는 역할).

상황설정 2 : 친구에게 운동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상대방은 거절하는 역할)

상황설정 3 : 이순신과 세종대왕중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토론한다(서로반대의견을 제시)

상황설정 4 : 외판원이 영어회화 테이프를 사라고 한다(상대방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

상황설정 5 : 직훈반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입 검정고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논한다(둘은 서로 친한 친구간이다)

3) 피이드백

한 쌍의 역할연기가 끝날때 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지도자와 다른 집단원들은 대화하는 모습에 대하여 (유인물2)의 내용에 비추어 피이드백을 해주고 역할연기를 한 사람의 소감을 들어 본다.

4) 느낌발표

집단활동 동안의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 후 주장행동의 음성적 요소와 주장행동의 체언적 요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다음 시간까지 (유인물2)를 완전히 숙지해 오도록 한다.

주장행동 요소 훈련Ⅱ(유인물 2)

주장행동의 방법	
음성적 요 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호한 음성으로 말한다. 2. 또렷 또렷한 음성으로 말한다. 3. 생동감 있는 자연스런 억양으로 말한다. 4. 상대방이 <u>알아 들을 수 있는 음성</u>으로 말한다. 5. 말하는 도중에 "에-" "음-" 등의 불필요한 말 때문에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체언적 요 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할 때 상대방과 <u>적절한 거리</u>를 유지한다. 2. 말하기 전에 <u>주저하지 않는다</u>. 3.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u>서두르지 않는다</u>. 4. 말하는 동안에 상대방과 <u>적절히 눈을 마주친다</u>. 5. 말하고 있는 <u>내용과 일치하는 표정</u>을 짓는다. 6. 말하고 있는 <u>내용과 일치하는 몸짓</u>을 취한다. 7. 말하는 동안에 <u>손발을 자연스럽게 처리한다</u>. 8. 말하는 동안에 <u>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처리한다</u>.

5. 형식적 관계 주장훈련

1) 강의

지금까지는 주장행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장행동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주장훈련의 음성적 요소와 체언적 요소를

잘 숙지하고 있겠지요(확인 한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주장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 3)을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익힌 주장행동의 표현적 요소와 상대방 고려적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 및 방법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 그리고 체언적 요소의 주장행동요소 2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2명씩 짝을 지어서 집단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서로간에는 모르는 사이라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은 나누어준 (유인물 3)의 역할연기자의 성명란에 역할연기자의 이름을 적고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해당되는 요소에 잘했으면 0표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X표를 하십시오. 해당되지 않은 것은 표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2) 역할연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파트너와 상의하여 마음에 드는 상황을 선택하여 잠시 연습한 후 두사람이 역할연기를 해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상황1 : 외판원이 자신의 책을 선전하면서 강요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상황2 : 방문지도위원이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임했는데 자기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등 답하기 싫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

상황3 : 취업하기 위하여 그 직장의 사장에게 부탁했을때 사장은 자신을 별로 탐탐치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

상황4 : 전자 대리점에서 카세트를 구입했다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하러 갔는데 대리점 주인이 교환 해주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

상황5 :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꺼내다 진열장의 받침대가 빠져 진열장이 파손되어 주인이 변상을 요구한다. 자신의 생각으로 는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진열장이 원래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는 상황

3) 피이드백

한 팀이 끝날 때 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집단원들은 자신이 체크한 (유인물3)을 보면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역할연기를 한 두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4) 느낌발표

훈련을 통하여 느낀 각자의 소감을 자유로이 말하도록 하고 지도자는 26 가지 요소가 주장행동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완전히 숙지하여 올 것을 당부한다.



주장행동 평가표(유인물3)

형식적, 중요한, 친밀한 관계						
역할 연기자						
주장행동 요소						
내 용 및 방 법 적 요 소 음 성 적 요 소 체 언 적 요 소	1. 하고 싶은 말을 함					
	2. 지나친 사과나 변명을 아니함					
	3. 대화의 초반에 요점을 말함					
	4. 솔직하게 말함.					
	5. 상대방에게 직접 말함					
	6. 내용을 분명하게 말함					
	7. 예의를 지킴					
	8.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					
	9. 나 전달방법을 사용함					
	10. 상대방을 공감해 줌					
	11. 상대방 감정을 예견					
	12. 개인적 사정을 말함(이유)					
	13. 타협안을 제시함					
	14. 음성이 단호함					
	15. 음성이 또렷 또렷 함					
	16. 억양이 자연스러움					
	17. 목소리의 크기가 적당함					
	18. 말이 도중에 끊어지지 않음					
	19. 적절히 거리를 두고 말함					
	20. 말하기 전에 주저하지 않음					
	21. 말하기 전, 도중에 서둘지 않음					
	22. 상대방과 눈길을 마주침					
	23. 내용에 일치하는 표정을 지음					
	24. 내용에 일치하는 몸짓을 지음					
	25. 손발의 처리가 자연스러움					
	26. 몸 전체가 자연스러움					

6. 중요한 관계 주장훈련

1) 강의

지난 시간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주장행동을 훈련해 보았지요. 주장행동 요소를 숙지하고 있습니까?(숙지상태를 알아 본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나 친척등과 같은 매우 친밀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장행동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훈련을 하게되면 중요한 관계에서 주장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3)를 보십시오. (유인물3)를 보면 주장행동의 표현적 요소와 상대방 고려적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 및 방법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 그리고 체언적 요소의 구체적인 주장행동 요소 26가지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정석을 알고 있어야 바둑을 잘 둘 수 있듯이 이것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주장행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처럼 2명씩 짝을 지어서 집단 앞에서 대화를 할 때 두 사람간에는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은 나누어준 (유인물3)에 역할 연기자의 이름을 적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해당되는 요소에 잘했으면 O표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X표를 하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난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역할연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파트너와 상의하여 마음에 드는 상황을 선택하여 잠시 연습한 후 두 사람이 역할연기를 해 보십시오.

상황1 :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과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만도 무척

힘이 드는데 옆반 선생님께서 자기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상황2 : 자신은 비록 화장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었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반성은 못할망정 변명을 한다고 더욱 꾸중하고 있는 상황

상황3 : 친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와 싸움을 하였다고 자기 혼자만 당직 선생님께 불려가 꾸중을 듣고 있는 상황

상황4 : 호실 고참이 면회때 받은 차입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빌려 주자니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빌려 주지 않자니 그 고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되는 상황

상황5 : 사장이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은 자주 하지만 월급은 올려 주기를 꺼리고 있어 마치 자신이 사장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

3) 피이드백

한 팀이 끝날 때 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집단원들은 자신이 체크한 (유인물3)를 보면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역할연기를 한 두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4) 느낌발표

훈련을 통하여 느낀 각자의 소감을 자유로이 말하도록 하고 지도자는 26가지 요소가 주장행동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완전히 숙지하여 올 것을 당부한다.

7. 친밀한 관계 주장훈련

1) 강의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 직장의 사장등과 같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주장행동을 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주장행동 요소를 이제는 다 잘 숙지하고 있겠지요.(숙지상태를 알아본다) 이번 시간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장행동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훈련의 요점은 친밀한 관계에서 비주장 행동을 주장행동으로 대치시켜 보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훈련을 마칠때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장행동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적 관계와 중요한 관계의 주장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겠지만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3)를 보십시오. (유인물3)를 보면 이제까지 익힌 주장행동의 표현적 요소와 상대방 고려적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 및 방법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 그리고 체언적 요소 26가지가 있지요. 이번 시간에도 집단원중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셔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짝이 되지 않은 사람과 짝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은 나누어준 (유인물3)에 역할 연기자의 이름을 적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해당되는 요소에 잘했으면 O 표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X표를 하십시오. 해당되지 않은 난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역할연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파트너와 상의하여 마음에 드는 상황을 선택하여 잠시 연습한 후 두사람이 역할연기를 해 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한 후 해도 좋겠습니다.

상황1 : 어머니께서 집에 중요한 전화가 올것이니 집을 비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외출하셨는데 친한 친구가 같이 영화보러 가자고 찾아왔다. 영화보러 갈마음이 별로 없지만 친구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 상황

상황2 :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어머니께서 여행비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다.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해 여행비를 받지 못하면 친구에게 자신이 창피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상황3 : 동생이 매일 늦게 들어와서 무엇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나무라자 동생은 형은 알 것 없다고 한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동생이 나쁜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생으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

상황4 : 아버지 방에 들어 갔다가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길래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써버렸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을때 마음이 불안해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

상황5 : 형이 아끼는 운동 기구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가 친구가 잘못하여 운동기구를 고장나게 만들었다. 운동기구를 형 방에 다시 갖다 놓았지만 형이 알면 화를 낼것만 같다. 형한테 이 일을 말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형이 돌아 왔을 때 미리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

3) 피이드백

한 팀이 끝날 때 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집단원들은 자신이 체크한 (유인물3)을 보면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역할연기를 한 두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훈련을 통하여 느낀 각자의 소감을 자유로이 말하도록 하고 지도자는 26가지 요소가 주장행동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완전히 숙지하여 올 것을 당부한다.

8. 대중관계 주장훈련

1) 강의

지난 시간에는 친구, 부모, 형제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주장행동을 훈련했습니다. 주장행동 요소 26개를 이제는 줄줄 외 수 있겠지요. (확인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보면 중요한 관계에서나 친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비주장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모든 관계를 포함한 대중 관계에서의 주장행동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대중관계에서의 주장행동을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나누어준 (유인물4)을 보십시오.

악어강 이야기(유인물4)에는 등장 인물이 5명 있습니다.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5명씩 두팀으로 나눈후 반드시 만장 일치로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두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전체토론을하여 우리집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역할연기

두팀으로 나누어 서로 토론해 보도록한 후 집단원들에게 카드 1장씩을 준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하여 카드에 별칭을 적도록 하여 집단원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읽어 보도록 한후 녹화물을 보면서 피이드백 해준다.

- 0. 가장 예절을 잘 지키면서 말한 사람은?
- 0.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경청한 사람은?
- 0. 나-전달법으로 가장 잘 말 한 사람은?
- 0. 상대방을 잘 공감해 주는 사람은?
- 0. 타협안을 제시한 사람은?

3) 피이드백

소집단이 토론하는 장면과 전체집단이 토론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통하여 보면서 집단원이 주장적 행동 요소를 얼마나 잘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나를 피이드백 해준다.

4) 느낌발표 및 마무리

주장훈련을 통하여 느낀 개인적인 느낌이나 변화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도록 한후 26가지의 주장행동을 위한 기본 요소를 상기 시키고, 이것을 자신의 생활에 습관화 할 수 있도록하여 자신이 직면하는 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주장행동 훈련을 마무리 함.

주장행동 평가표(유인물4)

악어강 이야기

옛날에 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철수라는 소년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철수는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운 나쁘게도 안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안경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므로 영이는 안경점에서 그 안경을 수리해 주겠다고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안경점은 강 건너에 있었고 강에는 무서운 식인 악어가 살고 있어서 배가 없으면 건널수가 없었습니다. 영이가 강을 건널려고 할 때 지난번 홍수때 강가에 있던 배들이 다 떠내려 가고 타고갈 배가 없었습니다.

영이가 낙담을 한채 안경을 손에 쥐고 강쪽에 외롭게 서 있을 때 선배인 민규라는 소년이 나룻배를 저으며 다가 왔습니다. 영이는 민규에게 강 건너 안경점에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규는 영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수리하는 동안 그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라디오 한 대를 훔쳐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이는 민규의 말을 거절하고 다른 나룻배를 가지고 있는 소영이라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자신은 너무 바빠서 그녀를 데려다 줄 수 없고 남의 일에 끼여들기 싫다고 했습니다.

영이는 실망을 하고 별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민규에게 돌아가 그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이는 수리된 안경을 철수에게 주면서 영이가 겪어야만 했던 일을 말하였으나 철수는 영이의 말에 매우 화를 내며 다시는 영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이는 너무 상심하여 친구인 선희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선희는 영이가 너무 딱하게 느껴져 철수에게 복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선희는 철수의 뺨을 한 대 쳤고 안경은 다시 깨어졌습니다.

〈부록 2〉

상담과정 기술(행동관찰)

1회: 훈련안내 및 별칭짓기

두평 남짓한 상담실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집단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실의 크기가 10명이 집단상담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이다. 주장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집단상담 진행 방향을 설명해주고 나서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를 하고 집단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보는 순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집단원 10명중 4명이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 남편은 집단분위기를 리드해 나갈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집단의 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했다.

별칭짓기를 할 때 별칭을 짓게된 이유를 나누어준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했을 때 여포와 깨물어보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글로서 표시하였다.

집단원의 속성을 보면 내남편과 도둑고양이가 말이 많고 그 내용이 공격적인 주장을 하며 다른 집단원들은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다.

강의 도중에 집단원 2명이 서로 이야기를하여 제지시키는등 집단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여서 인지는 몰라도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는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둑고양이가 진행계획서를 읽어보고는 역할연기와 피드백이 무엇인지 물었다.

2회 : 주장행동 변별훈련

집단원중 내남편이 아침에 지도자에게 와서 오후에 집단상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오후에는 비디오를 보기 때문이라고해서 오전에 집단상담을 하였다.

집단상담초기에 내남편이 오후에 할 집단상담을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수동적, 공격적, 주장적행동을 각 집단원이 두명씩 짝을 지어 한명은 집단원으로 다른 한명은 지도자로서 차례로 집단앞에서 역할연기를 해보았다. 이것이 끝나고 주장행동에 대한 강의를 한후 개별적으로 질문을하여 반응해보도록 하였다. 하늘과 바다, 여포, 뼈약, 현도사는 소극적인 반응밖에 못하였으며 내남편과 깨물어봐는 3가지 반응을 적절히 잘 표현했고 도둑고양이와 도깨비는 주장적인 반응을 나타낼려고 애쓰는 모습이며 공격적으로 반응해보라는 역할에서는 자신의 공격성을 잘 표출하지 못했다.

두명씩 짝을 지어서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한후 이를 무비 카메라로 찍은후 한팀이 끝날때마다 보면서 지도자와 집단원들이 피이드백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남편은 다른팀이 할 때 끼어들기도하고 옆사람에게 장난을 걸기도하여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주는 행동을 하였는데 여기에 하늘도 다소 가세하였다. 내남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남편이 갖고 있는 공격성이 포장되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지도자의 말에 다소 동의를 하는 눈치였으나 잠시후면 또 그런 행동을 하곤했다.

다른 집단원들도 자신의 역할연기에는 진지하게 잘 임하지만 다른 팀이 할 때는 분위기가 다소 산만해져서 지도자가 자주 그런 분위기를 바꿀려고 집단원들의 행동을 지적해주었다.

아직까지는 집단원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피이드백해주는데 관심이 적어서 비디오를 보면서 지도자가 주로 피이드백해준다음 그 피이드백이 적절한지를 자주 물어보았다. 시간적으로 2시간 이상이 소요된 회기였다.

3회 : 주장행동요소 훈련 I

강의 도중에 내남편은 다른 집단원과 말을 걸고 다른 집단원이 잘 듣지 않는다고 눈총을 주는 등 집단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다. 내남편은 소년원에 들어온지 1년쯤된 학생인데 처음 소년원에 들어 왔을 때 심리극을 같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집단속에서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간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이었다. 그당시 심리극을 할 때 집단활동에 방해를 하던 학생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지금 내남편이 하는 행동이 그때의 학생들의 나쁜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더니 내 남편도 그렇다고 한다. 그 당시 내남편은 자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깊게 생각한후 질문이나 답을 하는 학생이었다. 내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피이드백을 준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훈련이 끝날때까지 집단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집단원들이 역할연기를 할 때 주장적인 행동을 잘 하였다. 3회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주장행동이라는 것이 학습된것으로 판단되었다. 역할연기를 녹화하여 피이드백을 주는 시간에도 2회처럼 그렇게 산만하지않고 다소 진지해 보였으며 다른 집단원이 한 역할연기에 대해서도 주장적인지 비주장적인지를 피이드백해줄수 있는 능력도 보였다. 이훈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지도자의 질문에 집단원들은 소극적인 반응에서 많이 주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였다. 말투나 태도로 보아 실재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실재 생활장면에서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다가 감정이 격분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4회 : 주장행동요소 훈련 II

4회까지의 내용을 보면 1,2회는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훈련이었으며 3,4회는 주장행동을 하기위해서 고려해야 요소들을 학습하는 시간이였다. 즉 4회까지는 주장행동에 대한 이론을 배운셈이다.

강의를 해줄때는 집단원 모두 열심히 잘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보면 20분정도의 강의와 집단원의 역할연기를 비디오로 보면서 피이드백 해주는 시간이였다. 집단원들이 처음 무비카메라로 자신이 연기한 것을 볼때는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였으나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신기함이나 놀라움은 보이지 않았다. 집단원들이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다. 두사람이 역할연기를 할 때 나머지 집단원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장난을하여서 지도자가 자주 이를 제지했지만 지난 시간보다는 그런 행동이 다소 줄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피이드백할 때 지도자가 집단원들에게 두사람의 역할연기중에서 어떤 면이 주장적이고 어떤 면이 비주장적인지를 같이 구분해보자는 말에 집단원들이 성의를 보였지만 도둑고양이와 바다는 듣고는 있는 것 같지만 시선은 주지 않았다. 집단원들이 주장행동 요소에 비추어 어떤 내용이 주장적이고 어떤 내용이 비주장적인지를 이제는 웬만큼 변별할 수가 있었다. 특히 내 남편은 잘하였으며 지난 시간처럼 지도자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행동은 나타내지 않았다.

빼약이가 가장 열심히 주장적으로 말해 불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목 소리가 나며 알아듣기 어려운 여포의 목소리가 다소 커졌음을 느낄수 있었다. 지도자의 생각으로는 집단원이 주장행동이 무엇이며 고려할 요소들을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한 것 같았다.

5회 : 형식적관계 주장훈련

집단원 2명이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올때까지 한 30분정도 기다렸다가 상담을 시작하였다. 기다리는 동안 내남편에 대해서 소년원에 처음 왔을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간에는 나쁜쪽으로 많이 변했음을 이야기 해주었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지도자의 말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별말은 없었다.

2명이 올때까지 집단원들에게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고맙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말해보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수업시간에 친구가 노트를 빌려주었다고 했다. 그때 왜 고맙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떠올랐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고맙다는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지난 시간처럼 비디오를 보면서 피이드백 하지 않고 이번시간에는 주장행동 평가표를 나누어주고 2명이 역할연기를 할 때 해당하는 난에 잘하면 O표 못하면 X표를하여 평가해 보라고 했더니만 진지하게 역할연기자의 말과 행동을 듣고 관찰하였다. 역할연기가 다 끝나고 비디오를 보기에 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다음회기때 보기로하고 10분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5회까지의 자신이 이 훈련에서 느낀점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했는데 깨물어봐는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여포도 말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집단원들도 보다 적극적이고 주장적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집단원이 무엇을 위해 이 훈련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6회 : 중요한 관계 주장훈련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 중에는 그 변화가 눈에 띄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 여포는 선천적으로 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가까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비디오로 통하여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면서인지 점점 목소리의 톤이 매우 높아져 여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집단원이 다들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빼약이는 집단을 시작할 때부터 주장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주장적으로 말해볼려고 매우 애를 쓰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분석력이 다소 떨어져 집단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렇지만 초기와는 달리 지도자가 질문을 던져올 때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단원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집단상담의 초기에는 지도자가 질문을 하면 집단원들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소극적인 행동임을 알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도둑고양이의 경우에는 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좋으나 인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좋으냐고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지도자가 물어볼 때 머뭇거리지 않고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듣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역할연기시 초기에는 역할연기자외의 집단원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나면 다른 사람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옆사람과 장난을 한다든지 하여 분위기가 다소 산만한 느낌을 가졌는데 5회부터 다른 사람의 역할연기를 평가해보도록 하였더니 집단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집단원이 평가한 주장행동 평가표(유인물5)을 서로 돌아가면서 보게하였더니 누가 잘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하늘도 집단초기에는 관망적인 자세로 말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지도자가 제지해야 할만큼 장난을 할 정도이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훈련의 효과라기 보다는 집단초기의 어색함이 없어지고 집단 자체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집단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도사는 비디오를 보고 느낀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자신도 아직까지 별의식이 없었는데 대화중 어색해지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고 보기가 싫었다고 하면서 고쳐야겠다고 했다.

내남편은 초기에는 집단원들보다 우월감을 갖고 집단을 리드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자제된 것으로 보인다.

역할연기에서는 깨물어봐가 말을 오래하며 장난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상황판단이 잘되며 주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천재와 도둑고양이는 표현은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역할연기를 통하여 볼 때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는 집단원중 막내라서 그런지 가장 소극적이며 자발성이 부족하여 말을 하여도 집단원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바다에게 말을 건넨후 바다가 한 말을 집단원들이 알아 들었는지를 확인해 줌으로서 바다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지 않음을 피드백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부터는 목소리의 톤이 한층 높아졌다.

7회 : 친밀한 관계 주장훈련

집단원들이 주장훈련에서 강조하는 주장행동요소들을 대부분 잘 숙지하고 있었다. 주장행동요소 26가지중 자신에게 인상깊은 것으로 대부분 10개 이상은 지도자가 물었을 때 말하였다. 집단원이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때는 “제 생각에는”하는 말이 꼭 들어간다.

상대방 감정을 예견하는 말도 종종 쓴다. 삐약이와 도둑고양이와의 역할 연기에서 도둑고양이가 친구인 삐약이에게 영화보러 같이 가자는 제안에 삐약이가 “이런 말을 하면 섭섭하게 여기겠지만”하고 상대방의 감정상태도 고려해줄수 있게 되었다.

역할연기중에 주장적으로 대화를 할 때 지도자가 공격적으로 서로 반응해 보라고 했을 때 어색해 하면서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무엇이 주장행동이고 무엇이 비주장 행동인지를 알며 비주장행동이 좋지않다는 것을 학습한 결과로 보인다. 집단원들이 적어도 상담장면안에서만은 주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8회 : 대중 관계 주장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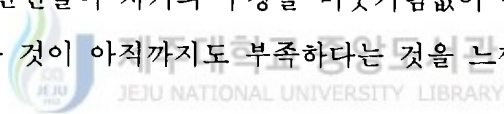
마지막회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을 해보았다. 집단을 2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내남편, 현도사, 바다, 하늘, 도깨비가 한팀 삐약이, 도둑고양이, 여포, 깨물어봐, 천재가 한팀으로 구성되었다. 내남편팀에서는 내남편이 집단을 리드했으며 하늘과 도깨비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내남편의 주장에 결국은 설득 당하였다. 그리고 현도사와 바다는 관망적이었다. 삐약이 팀에서는 여포만이 다른 생각이여서 여포가 4명을 상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 집단에 동조하였다. 지도자가 여포에게 왜 생각을 바꾸었느냐고 하니까 다른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내남편 팀은 내남편이 너무 강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집단구성원들의 발언 수가 적었던 반면 삐약이팀에서는 골고루 자기의 의사를 펼쳤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내남편 팀에서는 도깨비였으며 삐약이팀에서는 천재였

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했을 때 내남편 팀에서는 하늘, 빼약이팀에서는 천재였다. 이처럼 토론의 목적과는 다른 질문을 지도자가 던지자 집단원들은 너무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장훈련에서 배운 것을 일상 생활에 적용한 경험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깨물어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아이에게 그런 욕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구나하고 주장적으로 말했더니만 오히려 자기를 때리더라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가 기분이 안좋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구나하는 말을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니까 깨물어봐는 자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공감해주지 못했음을 알아차렸다.

집단상담을 종결하는데 대해서 집단원들이 섭섭한 표정을 짓고 더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달에는 인지적 주장훈련을 해보자고 했더니 집단원들이 좋아했다. 집단상담 8회동안 별다른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었다. 다만 내남편이 집단을 리드하려고 하는데서 집단의 역동성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 아쉬운점으로는 집단원들이 자기의 주장을 머뭇거리없이 잘하나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부록3〉 검사척도

주 장 척 도

이름 _____

일 리 두 기					
<p>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도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u>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잘 말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주장행동 척도</u>입니다.</p> <p>이 설문지에는 시험문제와 같이 맞는 답이나 틀리는 답은 물론, 좋은 답이나 나쁜 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문지의 100개 진술문(문장)을 하나씩 차례로 주위깊게 읽은 다음 <u>여러분 자신의 평소 행동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면 됩니다.</u></p> <p>이 척도에 답하는 방법은 각 진술문을 차례로 하나씩 읽어 가면서 <u>여러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각 진술문의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u> 아래의 기준에 의거 해당란의 번호에 O표하면 됩니다.</p> <p>진술문 중 여러분이 <u>경험하지 못한 내용일 경우는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에 처했다고 가정하고</u>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진술문은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거의 불일치	대체로 불일치	반정도 일치	대체로 일치	거의 일치
1.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①	2	3	4	5
2.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1	②	3	4	5
3. 반정도 일치한다고 여겨지면-----	1	2	③	4	5
4. 대체로 일치한다고 여겨지면-----	1	2	3	④	5
5. 거의 일치한다고 여겨지면-----	1	2	3	4	⑤
<p>답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되도록이면 빨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p>					

	거의 불일치	대체로 불일치	반정도 일치	대체로 일치	거의 일치
1. 잘 아는 사람의 좋은 일을 축하해 줄 경우, 서두른다.-----	1	2	3	4	5
2.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섭섭하다는 점을 그 사람에게 <u>또렷</u> <u>또렷하게</u> 말한다.-----	1	2	3	4	5
3. 책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u>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 지를</u> <u>모른다.</u> -----	1	2	3	4	5
4. 부모님이 주시려는 용돈과 내가 요구한 용돈에 차이가 있으면 타협안을 내 놓는다.-----	1	2	3	4	5
5. 주위 사람의 흡연으로 견디기 어려울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 지를 모른다.-----	1	2	3	4	5
6. 친한 사람이 시내에 가자고 하면 싫어도 같이 간다.-----	1	2	3	4	5
7. 누구와 함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같이 가자고 말한다.-----	1	2	3	4	5
8. 상대하고 싶지 않은 여학생이 계속 치근덕 거리면 불쾌감을 바로 말한다.-----	1	2	3	4	5
9. 싫은 경우라도 심부름은 불평없이 한다.-----	1	2	3	4	5
10.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다.-----					
11. 나의 흠을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아 보려고 할 경우,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 본다.-----	1	2	3	4	5
12. 상대하기 싫은 여학생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적절한 몸짓을 취하면서 말한다.-----	1	2	3	4	5
13. 개인적인 고민을 말할 경우, 상대방이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한다.-----	1	2	3	4	5
14. 나를 멀리 하려는 사람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경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다.-----	1	2	3	4	5

15. 사귀고 싶은 여학생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경우, 손발의 처리가 부자연스러워진다.----- 1 2 3 4 5
16. 산 물건을 교환할 경우 아저씨와 적당한
거리를(50-60cm) 유지하면서 말한다.----- 1 2 3 4 5
17.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조용해 달라는 말을 할 경우,
그 뜻을 분명하게 말한다.----- 1 2 3 4 5
18. 칭찬해 주는 사람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
할 경우, 진성으로 하지 않고 얼굴에도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한다.----- 1 2 3 4 5
19.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말할 경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먼저 이해해 준다
(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1 2 3 4 5
20.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비켜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 연령 등에 맞게 예절을 지키면서
말한다.----- 1 2 3 4 5
21.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려고 할 때 말이나 행동이 어색해진다.
----- 1 2 3 4 5
22.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사귀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 거린다.----- 1 2 3 4 5
23. 필요한 물건이 있어 주위 사람에게 빌려
달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어색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24.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려고
할 때 불안해 진다.----- 1 2 3 4 5
25.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 하려고
할 때 불안해진다.----- 1 2 3 4 5
26. 잘 아는 사람의 좋은 일을 축하해 줄 때,
자신은 아주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7. 나를 무시하는 어른에게 내 기분을 말
함으로써 그로부터 버릇없는 학생이란 말을
들었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8. 책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
서 그 사람 에게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용돈이 부족하다고 부모님께 말씀 드리므로서 부모님께 돈 걱정을 끼쳐서는 <u>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30. 어른에게 담배연기 고통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므로서, 어른에게 <u>버릇없는 학생이라는 말을 들어서</u> <u>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31. 시내에 같이 가자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에"나 "음"등이 말 사이에 들어가면서 <u>말이 자주 중단된다.</u> -----	1	2	3	4	5
32.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 <u>이야기가 시작되자 바로 그 말을 한다.</u> -----	1	2	3	4	5
33. 치근덕거리는 여학생(이성)에게 불쾌감을 표현 할 경우 <u>단호하게 말한다.</u> -----	1	2	3	4	5
34. 사정에 의해 거절해야 할 경우, <u>상대방의</u> <u>말을 관심있게 듣지 않는다.</u> -----	1	2	3	4	5
35. 모르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질문할 경우, <u>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한다.</u> -----	1	2	3	4	5
36. 흉을 보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 보려고 할 때 <u>가슴이 두근 거린다.</u> -----	1	2	3	4	5
37. 관심을 보이는 남학생(이성)의 사진 찍자는 부탁을 거절하려고 할 때, <u>불안해진다.</u> -----	1	2	3	4	5
38. 개인적인 고민을 잘 아는 어른께 말씀 드리려 할 때, <u>얼굴이 붉어진다.</u> -----	1	2	3	4	5
39.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를 멀리 하기에 섭섭하다고 말 하려고 할 때, <u>가슴이 북받친다.</u> -----	1	2	3	4	5
40. 사귀고 싶은 여학생(이성)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u>가슴이 두근 거린다.</u> -----	1	2	3	4	5
41. 조금이라도 나의 잘못이 있다면, <u>사은 물건을 교환하려고 해서는 안된</u> <u>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42. 주위에서 좀 시꺼럽게 떠드는 사람
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함으로
서 상대를 미안하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3.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나의 자랑을
함으로서 그로부터 겸손하지 못하다
는 말을 들었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44. 빌어간 돈을 갚아 달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과 아주 멀어지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5. 새치기를 허락하지 않으므로써
상대와 실랑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6. 누가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싫어도
오라고 한다.----- 1 2 3 4 5
47. 서로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서로 사귀고 싶다고
말한다.----- 1 2 3 4 5
48.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에게 빌려
달라고 말한다.----- 1 2 3 4 5
49.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싫어도 빌려준다.----- 1 2 3 4 5
50. 여러 사람이 토의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발표한다.----- 1 2 3 4 5
51. 잘 아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 축하해
주려고 할 때 어딘가 어색해 진다.----- 1 2 3 4 5
52.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려할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 1 2 3 4 5
53. 아끼던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할때, 불안하여 말이 떨린다.
----- 1 2 3 4 5

54.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u>긴장이 된다.</u> -----	1	2	3	4	5
55. 담배연기 때문에 전디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u>긴장이 되어 말을 잘 못한다.</u> -----	1	2	3	4	5
56. 시내에 같이 가자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u>그 사람도 나중에 나의 부탁을 거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57. 내가 가고 싶다고 <u>바쁜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58. 여학생(이성)이 나에게 보이는 관심에 대해 싫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여 그의 <u>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59. <u>바쁘다고</u> 어른의 심부름을 하지 않으므로써 <u>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60. 질문을 하려면 <u>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61. 누가 자신의 흉을 보면 <u>그 이유를 물어본다.</u> -----	1	2	3	4	5
62. 나는 싫으나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성)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u>거절한다.</u> -----	1	2	3	4	5
63.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u>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그 고민을 말한다.</u> -----	1	2	3	4	5
64.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 그 사람에게 <u>섭섭하다고 말한다.</u> -----	1	2	3	4	5
65. 사귀고 싶은 여학생(이성)에게 <u>관심을 나타내 보인다.</u> -----	1	2	3	4	5
66. 사온 물건에 잘못이 있어 교환하려고 할 때 <u>불안해진다.</u> -----	1	2	3	4	5
67.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u>겁이 난다.</u> -----	1	2	3	4	5

68. 칭찬을 받으면 어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69.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갚아 달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해진다.----- 1 2 3 4 5
70.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에게 비켜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71. 어떤 사람의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1 2 3 4 5
72. 서로 사귀고 싶을 경우, 그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가질 수 있는 느낌을 내가 먼저 말해 준다
(예: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겠지만)----- 1 2 3 4 5
73. 어른에게 부탁을 들일 경우 그 분과 자주 눈을 마주치면서 말한다.----- 1 2 3 4 5
74. 아는 사람의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몸 전체에 힘을 주면서 말한다.----- 1 2 3 4 5
75. 여러 사람이 토의하는 장소에서 나의 의견을 발표할 경우, 내 의견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만 나의 의견임을 강조하여 말한다.----- 1 2 3 4 5
76. 누구에게 축하해 주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바로 축하해준다.----- 1 2 3 4 5
77. 누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섭섭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78. 아끼던 책이라서 빌려주기 싫어도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 1 2 3 4 5
79. 용돈이 더 필요하면 부모님께 사정을 말하고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 1 2 3 4 5
80. 주위사람의 흡연으로 견디기 어려우면 그 점에 대해 그 사람에게 말한다.----- 1 2 3 4 5
81. 시내에 같이 가자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할 때, 어색함을 느낀다.----- 1 2 3 4 5

82. 잘 아는 사이이나 싫어할 것같은 사람에게 같이 놀러 가자는 부탁을 할 경우, <u>불안해 진다.</u> -----	1	2	3	4	5
83. 누가 치근덕거려 싫다고 말하려고 할 때, <u>불안하여 말이 떨어진다.</u> -----	1	2	3	4	5
84. 어른의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할 때, <u>긴장이 된다.</u> -----	1	2	3	4	5
85. 모르는 내용이 있어 질문하려고 할 때, <u>불안해 진다.</u> -----	1	2	3	4	5
86. 나의 흉을 보는 사람에게 따짐으로 해서, <u>주위 사람으로부터 좋지않은 인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87.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성)의 사진 찍자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u>그에게 미움을 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88. 아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말하려고 할 때, <u>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u> -----	1	2	3	4	5
89. 나를 멀리 하는 사람에게 잘 지내자고 말함으로써 <u>나의 자존심을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u> -----	1	2	3	4	5
90. 사귀고 싶은 여학생(이성)에게 내 마음을 보였다가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u>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u> -----	1	2	3	4	5
91. 사온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u>바로 가서 교환해 달라고 말한다.</u> -----	1	2	3	4	5
92.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u>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u> -----	1	2	3	4	5
93. 칭찬을 받으면, <u>진지하게 고맙다고 말한다.</u> -----	1	2	3	4	5
94. 돈을 빌어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 <u>돈을 갚아 달라고 말한다.</u> -----	1	2	3	4	5
95.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u>비켜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u> -----	1	2	3	4	5

96. 집에 놀러 오려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7. 어떤 사람에게 사귀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이는 내가 못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98.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므로써,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9.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박절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0.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발표 하려면, 거의 완벽하리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공격성 척도

이름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이것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목별로 모아 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그 글이, 평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거나 비슷하든지 혹은 틀리거나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1.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대체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면-----예(V), 아니오()
2.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잘 나타낸 것이
아니거나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면
-----예(), 아니오(V)

*** 이 검사는 옳고, 그릇 답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의견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1. 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맞서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예(), 아니오()
2. 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해 험담을 늘어 놓는다.예(), 아니오()
3. 나는 누가 내게 점잖게 부탁하지 않은 한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4. 나는 쉽게 화를 내지만 또한 쉽게 풀어진다.-----예(), 아니오()
5.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예(), 아니오()
6. 내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예(), 아니오()

7. 나는 친구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 점을 지적해 준다.-----예(), 아니오()
8. 나는 남을 몇번 속였던 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예(), 아니오()
9.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예(), 아니오()
10.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코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예(), 아니오()
11. 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때때로 불안해 진다.---예(), 아니오()
12. 나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약속을 청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예(), 아니오()
13. 나는 다른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예(), 아니오()
14. 나는 기대 이상으로 친절 한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일어난다.-----예(), 아니오()
15. 나는 가끔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다.-----예(), 아니오()
16. 나는 가끔 나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한다.-----예(), 아니오()
17.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예(), 아니오()
18. 나는 화가 났을 때 때때로 토라진다.-----예(), 아니오()
19. 나는 누가 거만하게 굴면 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예(),아니오()
20.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증오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21.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성급하다.-----예(), 아니오()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는 것 같다.-----예(), 아니오()
23.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쟁할 수밖에 없다.-----예(), 아니오()
24. 업무중에 피를 부리는 자는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예(), 아니오()
25. 누가 먼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예(), 아니오()
26. 나는 화가 났을때 가끔 문을 "팡" 닫는다.-----예(), 아니오()
27. 나는 인간관계에서 참을성이 강한 편이다.-----예(), 아니오()
28. 나는 누군가에 화가 났을때는 침묵으로 그를 대하는 편이다.-----예(), 아니오()
29.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볼 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예(), 아니오()

30. 많은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 것 같다.-----예(), 아니오()
31. 나는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예(), 아니오()
32. 나는 부모님에게 좀 더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진다.-----예(), 아니오()
33. 나 혹은 나의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나 싸움을 걸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예(), 아니오()
34. 나는 결코 짓궂은 장난을 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35. 나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면 격분한다.-----예(), 아니오()
36. 나는 사람들이 잘난체 할때는 일부러 천천히 일함으로서
반감을 표시한다.-----예(), 아니오()
37. 나는 거의 매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예(), 아니오()
38.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느낌을
갖는다.-----예(), 아니오()
39. 나는 화가 났을 때에도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40. 나는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예(), 아니오()
41.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한대 언어 맞기를
자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예(), 아니오()
42.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자주 뿌루퉁해 진다.-----예(), 아니오()
43.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쉽게 말한다.-----예(), 아니오()
44. 나는 종종 나 자신이 폭발하려고 하는 화약과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예(), 아니오()
45. 나는 표정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때때로 질투심에 사로
잡힌다.-----예(), 아니오()
46. "낮선 사람을 결코 믿지 말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예(), 아니오()
47. 사람들이 나에게 호통을 칠때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예(), 아니오()
48. 나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많이한다.-----예(), 아니오()
49. 나는 매우 흥분했을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예(), 아니오()
50. 나는 10살 이후로는 심하게 화를 내거나 울화통을 터뜨린
적이 없다.-----예(), 아니오()
51. 나는 격분했을 때에는 심한 말을 한다.-----예(), 아니오()
52. 나는 때때로 심한 말을 한다.-----예(), 아니오()

53. 나의 사고방식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귀기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예(), 아니오()
54. 나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편이다.-----예(), 아니오()
55. 나는 누가 껄뻐해서 혼내주어야 할 때일지라도 차마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없다.-----예(), 아니오()
56. 나는 낙제를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예(), 아니오()
57. 나는 누구하고나 자주 싸운다.-----예(), 아니오()
58.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부서버렸던 적이 있다.-----예(), 아니오()
59. 나는 거짓 협박을 잘한다.-----예(), 아니오()
60.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예(), 아니오()
61. 나는 일상 생활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는 편이다.-----예(), 아니오()
62.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지금은 그것이 위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예(), 아니오()
6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부족한 견해를 보통
내색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64. 나는 나쁜 일을 할때는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다.-예(), 아니오()
65. 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한다면 쓰겠다.-예(), 아니오()
66. 나는 누가 나를 알잡아 보더라도 화내지 않는다.-----예(), 아니오()
67. 나에게 진실로 해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예(), 아니오()
68. 나는 논쟁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예(), 아니오()
69. 나는 자주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느낀다.-----예(), 아니오()
70. 나는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운다.-----예(), 아니오()
71. 나는 사소한 일로는 불안해 하지 않는다.-----예(), 아니오()
72. 나는 좀처럼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모욕을 주려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예(), 아니오()
73. 나는 요즈음 다소 신경질을 내는 편이다.-----예(), 아니오()
74. 나는 어떤 일에 반박하여 논쟁하기 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의
의견에 따른다.-----예(), 아니오()
75. 나는 화가 났을 때는 가끔 책상을 내리친다.-- -----예(), 아니오()